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59호 [루게 제 24937호] 주체 104(2015)년 6월 8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자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가 안아온 자랑찬 성과

옥류교와 대동교사이 유보도로반조성과 지대정리 및 잔디심기 완성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대동강유보도를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거창한 전투가 계속 단계에 들어섰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양시에서 1만 수천㎡에 달하는 장식 및 웅변쌍기공사와 근 1만㎡의 대계단과 소계단 및 갖출림치기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나고 뒤편공간에 12만㎡의 혼색을 채우는 작업이 3일 동안에 완결되었다. 그리고 근 25만㎡의 지대정리와 잔디심기도 최상의 수준에서 동시에 마무리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당의 과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가장 완벽하게 끝내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산악같이 밀려오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강화현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꼬해를 막고 강화현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리아 합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도 평양이 그 어떤 큰물꼬에도 받지 않도록 대동강유보도를 새로 잘 건설할 때 한 커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그 수행방도까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처럼 이라면 산악도 떠돌이 불타는 열의를 안고 공사장에 달려나오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의 첫시작부터 완강한 공격정신, 대담한 실천력으로 무박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헤쳐나오며 치열한 전투를 벌여왔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정진력을 총괄발시기 위한 화선식정지사업에 첫째가는 힘을 넣어 온 공사가 불도거나 마냥 들끓도록 선진선동령향을 총동원, 총집중시켰다.

선진선동부의 전투적인 조직사업 밑에 온 공사가 하나의 거대한 직관전진마당으로 전환되고 불타는 열풍이 이룬 모든 작업장들에서는 기동예술팀과 대원들의 힘있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배우에 방승선진자를 싣고 대동강의 물결을 헤쳐가며 기동성있게 들어오는 방승선진의 위력한 모습이 공사장을 부글부글 끓게 하였고 대중속에 들어가 시공단위 당원들이 벌리는 화선식정지사업은 공사장에 달려나오는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공사지휘부일꾼들은 대중의

양양원 열의에 맞게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숙하게 하면서 시공지도를 짜고들어 공사가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책임성과 역할을 높였다.

시당위원회 책임일꾼들은 수시로 공사장에 나가 건설이 진행되는 전구간을 밟아보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즉시 대책해주는 것과 함께 공사가 질적으로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며서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시대정신, 새로운 시대속도의 창조자가 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그들은 공사의 주인은 철두철미 수도시민들 자신이라는 투철한 자각을 안고 모든 일꾼들이 위에서 자제를 보장해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막아내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며 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내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풀이하면서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시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수도 평양시가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수평결사투용,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보기가 될 것을 바라는 당의 요구를 피할 수 없었다. 다들 새겨안고 건설의 낮과 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왔다.

서성구역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천리마조선의 비약과 혁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친 1950년대 평양속도창조자들과 투쟁정신을 본받아 공사장에 달려나오는 첫날부터 불꽃나는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공사장적으로 제일 먼저 유보도석축기초공사와 웅변쌍기공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여 많은 구간의 도로포장과 관간, 잔주 설치 및 지대정리와 잔디심기를 남김없이 끝내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만경대구역에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놓는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방대한 량의 장식쌍기를 앞당겨 끝낸 구역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웅변쌍기공사와 혼색채우기와 다짐 그리고 연석설치를 단 하루동안에 해체할 목표를 세웠다. 구역의 책임일꾼들과 구역당,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온 구역이 결사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들은 먼발치로 수평결사투용,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보기가 될 것을 바라는 당의 요구를 피할 수 없었다. 다들 새겨안고 건설의 낮과 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왔다.

150m의 연석설치를 질적으로 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들에게 뒤집어 놓은 평양속도창조자들과 투쟁정신을 본받아 공사장에 달려나오는 첫날부터 불꽃나는 전투를 벌였다. 이들은 공사장적으로 제일 먼저 유보도석축기초공사와 웅변쌍기공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치열한 돌격전을 벌여 많은 구간의 도로포장과 관간, 잔주 설치 및 지대정리와 잔디심기를 남김없이 끝내고 공사를 마무리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만경대구역에서도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어놓는 훌륭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방대한 량의 장식쌍기를 앞당겨 끝낸 구역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웅변쌍기공사와 혼색채우기와 다짐 그리고 연석설치를 단 하루동안에 해체할 목표를 세웠다. 구역의 책임일꾼들과 구역당, 구역인민위원회 일꾼들을 비롯한 온 구역이 결사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 이들은 먼발치로 수평결사투용, 당정책결사관철의 본보기가 될 것을 바라는 당의 요구를 피할 수 없었다. 다들 새겨안고 건설의 낮과 밤을 창조와 위훈으로 빛내어왔다.

파제로 나섰던 장천지구 문화회관건설을 단독으로 맡아 제기일에 끝낸 그 기적, 그 기백으로 주변구역의 잔디심기도 하루동안에 질적으로 마무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구역과 대동강구역, 동대원구역과 선교구역에서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산악같이 밀려오는 수도의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본래를 남김없이 파시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평양시위원회, 평양시금생산국, 평양시승강기관리국을 비롯한 시급단위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평양시가 모든 면에서 전국의 앞장에 설에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깊이 자각하고 헌신 불복위는 전투를 벌여 맡겨진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지휘부의 조직사업 밑에

많은 공사과제를 성과적으로 끝낸 구역들과 시급단위에서는 유보도취부분의 근 25만㎡에 달하는 면적에 있는 도로와 연석, 제방장석들과 소계단들의 보수와 지대정리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단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하게 관철해 나가는 수도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성을 떠받들려 대동강유보도는 인민의 문화유산으로 날아갈 홀쭉이 꾸러지고 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최수복



자강도 산림과학연구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산림과학연구소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림조성, 산림보호관리에서 내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조국의 산들을 보살핀,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는데 대한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우량품종의 나무를 육종하는 연구사업과 조직배양에 의한 나무육종을 힘있게 벌려 산림자원을 늘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7월 9(7.20.08)년 7월 자강도산림과학연구소를 찾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직배양실, 시험양포장, 수목원 등을 돌아보시고 우량품종의 나무를 더 많이 퍼쳐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연구소일꾼들은 산림과학원과의 깊은 면제일에 현대적인 연구설비들과 기계를 마련하고

연구소내에 아이삼목장의 면적을 훨씬 늘려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였으며 석간, 만포시, 방림공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곳에 배수설비들의 학술연구를 조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지난 기간 우량품종의 나무를 자강도의 기후에 순화시키는데 연구사업을 꾸준히 벌였다. 김치진, 박연철 등무릇 비롯한 연구사들은 지난 7년동안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우량품종의 밤나무를 자강도의 기후에 순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점, 가지질기의 방법으로 우량품종의 밤나무를 조성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고 있다.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고심어린 탐구의 노력을 기울여 들레 나무육종을 1년이상 앞당길 수 있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 순안열풍이나무, 단나무, 비리나무를 비롯한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들을 자강도의 기후에 순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연구사들은 새 품종의 기를나무육종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연구소일꾼들과 연구사들은 관상용 나무들을 더 많이 퍼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례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사들은 지혜와 열정을 바쳐 빨리 자라는 키나무에 웃도리를 접하는 방법으로 모양새가 특이한 새 품종의 버드나무를 만들었다.

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은 빨리 자라고 용적적이 커 큰 참대버드나무를 자강도의 기후에 순화시키는데 이어 영양림의 방법으로 10만그루이상 생산하여 도안의 산림부문에 보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와 함께 정학철, 박영미 등 무릇 비롯한 연구사들은 조직배양의 방법으로 단나무와 포도나무도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당위원회에서는 연구소일꾼들과 연구사들이 경제적 가치가 큰 새 품종의 나무를 더 많이 연구개발하도록 지도사업을 짜고들면서 물질적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책임일꾼이 연구소에 자주 나가 연구사들이 육종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도록 고무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단풍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서 내서는 과학기술

가치있는 연구성으로 석탄생산을 추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기동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활동들을 강화발전시켜야 합니다.》

2. 8 직동청년단파에 파견된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서 내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또한 관상용나무를 늘이고 단풍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서 내서는 과학기술

적문제들을 적극 풀어나갔다.

그 과정에 설비의 현대화를 다그치고 앞선 제철, 제련방식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과학원 석탄과학분원 순천지구 무연탄체공공학연구소 평대시현장의 돌격대원들은 관상용나무를 늘이고 단풍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서 내서는 과학기술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탄체공공학연구소의 돌격대원들은 암반의 특성에 맞게 막대동발주와 설치요소를 과학적으로 결정하고 현장조건에 맞는 수동식물주입기를 설계제작하여 막대동발을 70m구간에 시공함으로써 자체와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조종용정류소와 한소전류용터에 의한 속도조절장치 10t구간에 도입하여 많은 전기를 절약하면서도 전차의 가동을 원활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제련장들을 복속식동발을 쓰는 쌍경도굴 동동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메탄가스측정기와 안전등, 메탄가스경보기, 수자식용차형용속계와 열선형용속계로 가스농도와 바람속도를 정확히 측정하여 철차전 로동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국가과학원 111호제철소 돌격대원들은 3선전력감시장치를 도입하여 10개의 압축기, 펌프, 권양기를 비롯한 수십대에 달하는 주요설비의 가동상태를 원격종합시험실에서 실시간 장악할 수 있게 하고 화상 및 음성통신체계를 구축하여 생산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

보장하기 위한 연구도입사업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의 돌격대원들은 정확도가 높은 갱내탄성파-전기종합CT탐사기에 의한 해석체를 석탄탐사에 리용하여 유망한 석탄매장으로 알려진 직동로박물삼사구역에서 많은 석탄매장량을 과학적으로 확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가과학원 환경공공학연구소의 돌격대원들은 관상용나무를 늘이고 단풍에 달려나간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들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을 비롯한 10여개 단위의 2월 17일과학자, 기술자들과 지혜를 합쳐 석탄생산을 늘리는데서 내서는 과학기술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돌격대에 달려나온 여러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가치있는 연구성들을 도입하여 탄부들의 선진증산투쟁을 힘있게 떠맡아 주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돌격대원들은 10t전차에 기술적특성이 좋은 대출력반도체정류소자를 도입하여 전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동기전동기들의 리차장치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리차전주력을 편리하면서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였다.

리과대학의 돌격대원들은 성능높은 지체발파기를 설계제작하여 굴진막장들과 제련장들에서 종전처럼 파괴모션과 도파선을 쓰지 않고 발파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평성석탄공공대학의 돌격대원들도 화공문제에 나노복합침기체를 받아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탄공업성에서는 관상용 나무를 더 많이 퍼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전례호동무를 비롯한

특파기자 리혁철

간석지건설에서 일대 혁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로성을 울리며 물결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승로 맞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장기업소의 간석지건설자들이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3호제방성토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간석지개간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부집장을 늘여야 합니다.》

당위원회는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안전지구의 대삽곳도에서 10만산, 20만산대발파와 수심차의 중소발파를 진행하면서 석달 남짓한 기간에 22만 7400㎡의 토량을 처리하고 1428m의 3호제방성토공사를 진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4월말부터 석화지구에 역량을 집중하고 3호제방성토공사와 배수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역량을 안전지구 배수공사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이번에 20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연합기업소에서는 3호제방성토공사와 배수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석화지구의 배수공사를 맡은 석화, 파산, 로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은 배수공기초공기리터치기공사를 끝냈고 안전지구의 배수공사를 맡은 장중, 다사, 보산간석지건설사업소의 전투원들도 수십만㎡의 기초공작을 진행하면서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3호제방기터치기공사를 맡은 선바사업소의 일꾼들과 전투원들은 자문부림법도를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마감막이구간에 대한 투쟁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한 조건에 맞게 합리적인 제방방성토공사를 받아들여 지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3호제방성토공사를 빠른 속도로

내밀고있다. 그리고 현장에 이동수리기들을 꾸러놓고 물결기체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대중의 양양원 혁명열의에 맞게 연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선진선동령향을 전투정들에 집중시켜 화선선진, 화선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다.

연합기업소 간석지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하여 흥건간석지건설장에서는 일대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글 특파기자 송창운
사진 본사기자 정순애

은 나라 협동들이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 1제대 제 1선창호를 지켜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분발해나선 각직 농업부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최악의 가물을 이겨내며 모내기성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최적이기 바로 정교한 일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현재까지 80%이상의 면적에 모내기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때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대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각직 당조직들에서는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가슴마다에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투쟁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리라 결대불변의 신념을 깊이 새겨주며 그들의 정진력을 총괄발시기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농업성과 각 도, 시, 군농지도 기관, 농업일꾼들은 알뜰 정보당수확고를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모를 번 목표를 제기하고 모내기를 최적이기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최악의 가물을 이겨내며 모내기성과 계속 확대

은 나라 협동들이 모내기전투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 1제대 제 1선창호를 지켜서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분발해나선 각직 농업부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최악의 가물을 이겨내며 모내기성적을 높여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최적이기 바로 정교한 일장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현재까지 80%이상의 면적에 모내기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때 영농공정별로 준비를 면밀히 한대 기초하여 시기별영농작업을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각직 당조직들에서는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의 가슴마다에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투쟁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리라 결대불변의 신념을 깊이 새겨주며 그들의 정진력을 총괄발시기 모내기전투에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농업성과 각 도, 시, 군농지도 기관, 농업일꾼들은 알뜰 정보당수확고를 최대로 높일 수 있게 모를 번 목표를 제기하고 모내기를 최적이기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각지 농촌들에서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비영양단지모배를 비롯한 물결약형농법을 90%이상의 면적에 받아들여내 대에 맞게 어 부족한 조건에서 모내기를 최적이기 끝내기 위한 기술적지도를 짜고들어 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벽성군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이 배수의 넉과 기상을 안고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자진만만인 베스모는 농장이, 마른논씨배치기, 포진정리를 앞세워 질적으로 끝내고 적은 물로 영양단지모내기일장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물결약형농법의 생활력을 파시하였다.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진담당책임제를 바로 실시한 배천군 조옥희협동농장에서는 모기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충분히 확보하고 280여개의 우물과 지하저수지, 굴포 등을 리용하여 최적이기 보충에 모내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강한 물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원만히 해결하며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끝낸 단위들이 늘었다.

김주군에서는 저수지의 물확보를 위한 40여구간의 간선물결장과 8개소의 하천보막

의 뜻을 현실로 꽃피우며 모내기전투의 앞장에 섰다. 농장에서는 논벼의 조기생육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일장계획을 세우고 그 날벼를 그날로 어김없이 수확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어 모내기를 질적으로 끝냈다. 운전군 율령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의 농장들에서는 모살이기간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 이른모를 메장처리하며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었다. 농장들에서는 물동량이 많은 조건을 타산하여 여러가지 운반도구를 만들어 리용하면서 로력을 집중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해주시와 웅진군간의 농장들에서는 물결약형농법을 적극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농방법들을 더욱 완성하고 효능높은 농기구를 적극 창안도입함으로써 모사률을 높였다.

남포시를 비롯하여 바다와 강을 낀 시, 군들에서는 모내기전투 후의 물관리 기술적요구대로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도들을 내놓고 이익하게 실천해나갔다.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은 이미 모를 번 포진들에 대한 물보장, 물주기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천출명장을 모시며 끝없이 창창한 민족의 앞길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반물질 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며 조국통일의 전환적투쟁을 헌명하게 이끄시는 격조적인 현실을 목격할수록 우리 겨레가 새겨안게 되는 건리는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혼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위대한 선군명장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민족의 미래는 끝없이 휘황찬란하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5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는 이 땅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기를 열어야 하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함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끝없는 호모십이 세대가 끊어지지 않았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조국통일사업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 나가며 쟁쟁이인들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중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반드시 실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업적이고 유언인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선군리장토우에 준엄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절대명령의 의지이다. 돌이켜보면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세우셨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이어오신 불멸불후의 선군명도의 나날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전에 그토록 념원하시던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애족의 실취가 엮여지는 뜻깊은 날이었다.

오늘도 우리 겨레의 가슴속에는 삼천리강토를 집삼킨 주체 101(2012)년 3월의 그 이야기가 뜨겁게 새겨져있다. 《청청하늘에서 심광이 일고 천둥소리를 듣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가, 《백악관과 청와대가 공중분해되는것을 보는데 같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판문각에서 쌍인정으로 남쪽을 내려다보셨다. 그 엄엄하고도 서리발같이 날카로운 모습에는 분별주의세력을 용서치 않았다는 비장함이 역력하였다.》... 경에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단행하신 역사적인 판문점시찰소식을 두고 당시 남조선 각계는 백두산장군의 드센 배짱과 강철의 단력앞에 이렇게 경란을 꿈지 못하였다. 왜 그랬지 않았는가.

판문점은 적아가 총부리를 맞대고 날카롭게 대치하고있는 가장 위험하고 첨예한 열점지역이다. 더구나 그때로 말하면 미제와 남조선피호진광들의 발발적인 북한전연속행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가 조성되고있던 시기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의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결의 최전방 판문점을 시찰하시었다. 참으로 그것은 백두의 기상과 단력, 조국과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확고부동한 통일의지를 지니신 천출원수인만이 단행할 수 있는 력사의 진언이었다.

그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판문점에 승엄하게 세우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천필비의 글발을 한글자, 한글자 주의깊게 바라보

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한평생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불멸 할 업적을 추억하여 회고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아버지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무려 4차례나 나오셨었다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고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문헌에 생애의 마지막필필찬을 남기신 수령님의 애국애족의 송고한 뜻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판문점에 천필비를 모셔도록 하시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며 동행한 일군들과 함께 수령님의 천필비앞에서 사전을 찍으셨다. 참으로 그 순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현실로 꽃피우실 백두명장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온 누리에 떨치고 조국통일의 력명이 밝아오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체취와 숨결이 역력히 숨배여있는 판문점에 남기신 경에하는 원수님의 그날의 자욱자욱을 상징으로 새겨안으며 우리 겨레는 가장 준엄한 시각에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송고한 애국애족의 력명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뛰쳐나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사상이나 리념보다도 애국애족의 뜻을 더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적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와도 단행하여 조국통일의 한데오에서 손잡고나기시려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뜻과 덕망을 실로 그 어느 위인도 지닐 수 없는 가장 송고한것이다.

통일행사를 파탄시킨 장본인

피뢰전선세력이 6.15 공동선언발표 15년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뻔뻔스러운 수작질을 해두고 있다. 며칠전 피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는 우리가 《행사무산책임을 전가》하는것은 《애우 부작질》하다고 아무배기를 치면서 저들이 《행사의 성공적추진을 기대》했다는 실로 가소로운 나발을 불어댔다. 지어 《집총제의 회피》나, 《공동행사가 개최되지》나 하면서 우리에게 행사파탄의 책임을 넘겨쳐우려고 모지를 썼다.

거짓과 모략에 이끌린 난 피뢰패당의 더러운 속성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놓고도 아닌보살을 하며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것은 참으로 역력히 그러했다.

우리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올 의지밑에 년초부터 자주통일의 대토론타를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6.15민족공동행사가 계획되고 우리의 주동적이며 정의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6.15민족공동행사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위전통을 받았으며 북과 남, 해외의 지역별준비위원회들은 행사의 성과적개회를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하지만 피뢰당국은 6.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 처음부터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행사합의를 위한 북과 남, 해외기간단체들의 실무협의를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피뢰패당은 이미 합의한 행사장소를 변경시킴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지어 6.15민족공동행사가 《민족공동성명회복을 위한 순수한 사회문화교류》로 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행사의 《비정치성》을 강박하는 망동까지 부러웠다. 이것은 결국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6.15민족공동행사를 열지 못하게 하려는 로골적인 방해책동이였다.

6.15공동선언발표의 민족사적의의를 되새기며 선언의 고수, 리행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나갈 전면적의지를 파시하는 통일행사에서 《정치성을 배제》한다는것이 말이

나 되는가. 피뢰들의 처사는 행사의 기본양미를 뺏아버리려는 술책으로서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을 한사코 부정하며 말살하려는 저들의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바로 그런 흉악한 계책을 품고있는자들이기에 6.15민족공동행사가 최후를 위한 북과 남, 해외기간단체들의 접촉과 협의에 음모양모로 제동을 걸고 복잡성을 조성하며 배방을 노겼었다.

피뢰패당의 고의적인 방해책동으로 하여 6.15민족공동행사가 개최를 위한 실무협의를 더 이상 진행될수 없게 되었고 행사는 북과 남, 해외에서 각기 치르어지는것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현실은 6.15민족공동행사가 파탄된 책임이 다름아닌 남조선피뢰당국에 있다는것을 명백히 립증해주고있다.

피뢰들이 그 무슨 《민족공동성명회복》이라는 것을 운도하였지만 그것은 6.15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사도, 리행할 의지도 없는 저들의 반물질적물질을 가리우기 위한 허울좋은 간판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은 6.15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갈 때 이룩되게 된다. 《민족공동성명회복》이니 뭐니 하는것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외면하고 《교류》의 명목밑에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총제의 말로이다.

피뢰패당이 아무리 말장난을 부려도 민족의 통일지향과 열에 찬물을 끼얹으며 6.15민족공동행사를 끝내 열수 없게 만든 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모처럼 마련되었던 6.15민족공동행사의 좋은 기회가 또다시 짓밟히고 남과 북에서 치닫되고는 현 북남관계는 6.15공동선언을 부정하며 악의적으로 대항해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계속 격화되고 나중에는 남조선법외에 필적지 않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확증해준다.

우리 겨레는 민족공동의 자주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북남관계과외책동에 미쳐달라지는 현 피뢰전선세력을 시대와 력사의 이념으로 단호히 정벌하고야말것이다.

리 성 호

박근혜는 구린내나는 입을 달아매고 망해가는 제 집안꼴이나 돌아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박근혜가 6월 제60회 《현충일》 추념사라는것을 하면서 또다시 구린내나는 입을 나불거리며 우리의 핵과 장거리로켓개발, 전략적수상 판도란수중시찰행사를 결코 《위협》이니, 《해무장포기》니 뭐니 하는 악담질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엄청난 도발행위이다.

남조선에 미국의 3대핵력거수단들을 비롯한 첨단핵장비들은 물론 세균무기까지 끌어들이고 끊임없이 북침핵전쟁발장난에 미쳐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박근혜당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드는것은 파렴치한 남조선적행태이다.

며칠전 남조선이 새로 개발했다는 판도란시험발사놀음에 낚였을 듯이되고 《북 전지역 핵포기》이니 뭐니 하고 허세를 부리다가 개로망신을 당하고도 계속 주동업질을 하는것을 보면 이를 단을 쓸 모르는 난치병에 걸린것이 분명하다.

침략자, 도발자들의 로골적인 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핵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억제력을 전면포로 강화해나가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우리의 병진로선과 자위력강화조치를 부정하는것은 곧 우리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부정이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모욕이다.

박근혜는 우리의 병진로선과 자위력강화조치를 또다시 악의에 차서 헐뜯음으로써 미국을 등에 업고 우리를 끝까지 대결하며 《홍수통일》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홍심을 다시금 백일하고 드러내놓았다.

박근혜가 요즘 입버릇처럼 떠드는 《평화화해》이니, 《대화》니 하는데 것처럼 관심이

남북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박근혜이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가 5월 28일 《6.15행사포기는 박근혜 책임》이라는 제목의 《우리 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팽동기가 쓴 글을 실었다.

같은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6.15공동선언을 전후하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립지우사업 등 남북협력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남북관공침략과 남북항공금수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6.15통일시대는 절정에 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금강산관광은 차단되고 남북사이의 초보적인 경제협력조차 가로막혔다고 비난하였다.

《북이외공격》에 의한 《천안》 호침몰을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는 《5.24조치》를

한사코 고집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민족공동행사에마저 성실하기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글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북관계개선의 실마리를 풀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6.15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하게 된 책임은 바로 박근혜에게 있다.

원래 6.15공동선언실현 남, 북, 해외추진위원회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5년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조국해방 70주행사는 평양에서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그러나 통일부가 개입하면서 문제는 완전히 꼬이고말았다.

《정부》는 지난 5월초 남북준비위원회 관계자를 통해 8.15행사의 서울개최를 북측과 합의해오면 6.15행사를 평양에서 개최하는것을 승인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6.15행사보장을 미끼로 8.15행사의 서울개최를 먹여보자는 심산이다.

《정부》는 6.15행사가 통일론으로 나가는것이 두려웠던 모양이다.

조국해방 70주 행사를 서울에서 크게 벌여서 집권위기를 모면하려는 데 있다.

박근혜는 6월 15일 당일에 남조선미국수뇌회담을 구실로 빠질것으로 판측된다.

6.15공동선언발표 15년이 되는 날에 미국을 행각하여 동맹강화와 미국, 일본과의 3각공조를 논의한다는것은 6.15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에 모독이다.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순탄하게 발전할수 있겠는가.

남북관계를 가로막는것은 박근혜이다.

【조선중앙통신】

총련 일군들을 불법기소한 일본경찰당국의 파쇼적만행

【도쿄 6월 6일 조선통신발 조선중앙통신】 우리 공화국의 존엄성은 해외동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파쇼적 탄압이 날로 악화해지고있는 가운데 최근 일본경찰당국이 《외환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기소한 총련일군들을 법원에 기소하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다.

지난 5월 12일 일본반동들은 교토부, 가나가와현, 야마구치현, 시마네현의 각 경찰본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본

부 경찰장대들을 내몰아 총련 일군들인 조선전문물판매주식회사 사장과 판매자들의 집에 기습적으로 달려들어 그들을 죄인취급하면서 다짜고짜로 수갑을 채워 강제행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본경찰당국은 《조선산 송이버섯을 중국산으로 위장하여 수입하였다.》는 죄명을 날조하여 동방주식회사의 《외환법》 위반행위와 억지로 연결시키며 총련중앙의 장과 부의장 등 일군들의 집들에

대한 수색소동을 일으켰다가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세세면전에서 맞선단 당하였다.

여기서 교혼을 맺은 대신 일본반동들은 오히려 폭압소동을 더욱 파란적으로 벌이며 열을 올렸었다.

제포된 총련일군들이 문제의 동방주식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졌지만 일본경찰당국은 그들중 2명을 법원에 기소하며 어떻게 하나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고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내에 반공화국, 반총련분위기를 고취함으로써 과거죄악을 은폐하고 공국주의를 부활시켜 조선반도제침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반동들의 망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법치》의 간판아래 불법적으로 감행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행위에 대한 단죄적, 파쇼적폭거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시민단체 대, 평화행동 돌입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5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전쟁반대, 평화행동에 돌입하였다.

참가자들은 《〈싸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등의 구호를 들고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것이라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일방위협력지침》 재개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남조선은 일본 《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었다고 개

박근혜가 미국을 행각하고 돌아오게 되는 18일까지 이를

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편 주제 넘은 너 두리

얼마전 피뢰국회 의장 정의화라는자가 고약한 망발을 제쳐냈다. 그 무슨 《혁명의료현실》이니, 《북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니 하며 우리의 존엄성은 사회주의제도를 너무나없이 헐뜯은것이다.

개입에서 상아가 자랄수 없듯이 반공화국대결의 만무장인 피뢰국회의 우두머리에게서 다른 소리가 나올리는 만무하다. 이자의 수작질이 불순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 《인권》 소동을 더욱 부채질하기 위한 망동이라는것은 두말할필요가 없다.

하지만 피뢰국회 의장이 《혁명의료현실》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걸고넘어지는 참으로 주책머리없는 행실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도대체 저들의 혁명현실을 보거나 하고 그따위 나발을 불어대는가.

최근 남조선에서는 호흠기성전염병이 급속히 퍼져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2일까지 3명이 사망하였으며 격박상자는 현재 수천명을 넘어섰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수백개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대학들이 문을 닫았으며 사람들은 밖으로 나다니는 것을 꺼려하고있다. 이 엄청난 사태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 각계는 피뢰당국의 무관심과 안일한 언니, 무능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라고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고있다.

이런 판에 도대체 누구보고 협담질인가. 하기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탄자균을 마구 끌어들이는 미국상선에 대해 항변 한마디 못한 쓸개빠진자이고보면 별로 놀랄것도 없다.

정의화는 동족을 무렵고도 헐뜯는 달인짓은 그만두고 인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저들의 썩어빠진 반역행위를 바로잡는데 열중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제 코도 찌지 못하는 주제에 남을 걸고들이야 언연것은 개로망신밖에 없다.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행위 (2)

미국이 남조선의 오산미공군 기지에 살아가는 탄자균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실험을 진행한것은 조선반도유사시 우리 인민을 대상으로 생화학전행위를 벌일 최악한 음모의 산물로서 절대로 묵과할수 없다.

이번에 폭로된 미국의 탄자균 반입사건은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가 감행한 생화학전행위를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은 세균무기만이 아니라 화학무기까지 서슴없이 사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살륙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미제는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의 기간에 공화국북반부의 24개 시, 군과 전선지우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사용하였다.

1951년 5월 남포시에 대한 무차별인 폭격을 가하면서 유독성가스를 대량적으로 살포하였다.

미제 침략군폭격기 《B-29》 3대가 당시의 삼파리,

화학무기까지 살륙의 수단으로 삼은 야수들

언, 건방, 풍습, 조계 등의 식로제품과 눈에 독해물을 묻혀 비행기로 뿌리는 천인공노할 만행도 저질렀다.

미제침략자들의 화학무기는 그 공격목표가 한정되었거나 전선과 후방의 모든 지역, 모든 대상물에 대하여 인의의 시각에 사용되었다.

미제는 또한 지난 조선전쟁시기 포로들을 독해물실험대상으로 삼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었다. 살인귀들은 1952년 거제도도를 비롯한 각지의 포로수용소에서도 최후성독가스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독해물로 몹시리치는 생체실험을 진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었다. 1952년 7월 7일 미제야수들은 거제도포로수용소에서 작업에 동원시킨다는 구실밑에 포로 120명을 특수장치를 한 자동차 2대에 갈라친고 4시간동안 차에 감금한채 독가스실험을 하였다. 이로 하여 그들모두가 두달동안이나 눈을 뜨지 못하였었다. 나중에는 불구자로 되었다. 1952년 8월 13일 풍조도수용

소에서는 자그마한 철조망안에 포로들을 가두어넣고 독가스를 퍼부어 증독상태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다 따져보면 끝이 없다. 미제침략자들은 포로들에게 화학수류탄을 던지고 가스작용시간을 측정하는 악행도 저질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미제의 화학무기사용만행은 우리 인민들은 물론 세계평화호인민들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는 반인륜적인 대량살륙행위였다.

이에 대해 국제민주여성평화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세계의 진보적과학자들로 무어진 권위있는 조사단들은 1951년과 1952년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현장들을 돌아보고 조사한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근거하여 미제침략자들의 전대미문의 전쟁범죄행위를 고발하는 기사들과 보고서, 공보, 호소문, 황의권지 등을 세계의 수많은 출판보도물들에 발표하여 흉악한 살인마 미제의 정체를 온 세상에 날남이

폭로하였다.

당시 국제민주여성평화 조사단의 한 성원은 《나는 지금 홀로머도당이 만들어놓았던 집단수용소들을 생각하여본다. 이 수용소들은 사람들을 독가스로 죽이는 유명한 장소였다. 그러나 미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만행은 히틀러도매의 죄악보다 몇배나 더 참혹한것이였다. 세상에 더 끔찍한것처럼 악독한 인간도살자는 없다.》고 하면서 미제의 극악무도한 살인만행을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미제침략자들이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생화학전행위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조선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저지른 고의적이고도 계획적인 범죄행위였다.

우리 민족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생화학전만행까지 서슴치 않았으면서 수많은 무고한 인민들을 다치게대로 살육한 미제살인마들의 죄악을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하며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영국

남조선신문 《한겨레》가 4일 조선반도에서 생화학전행위를 기어이 일으키려는 미제침략군의 위험천만한 기도를 폭로하는 글을 실었다.

같은 남조선주둔 미군이 탄자균만이 아니라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독소로 알려져있는 보툴리누스균까지 남조선에 들여와 실험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혹이 일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보툴리누스균은 탄자균보다

10배가량 더 독성이 강하다고 밝혔다.

미군이 서울 통신, 경기도 오산 등 3개의 미군기지에 연구소를 차려놓고 그 무슨 《주피터계획》에 따라 《생화학전대응체계》 실험을 진행해왔다는것이 밝혀졌다고 폭로하였다.

이번에 드러난 오산미공군기지에서 탄자균실험도 이 계획에 따른 실험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본사기자 라영국

